

글로벌 금융회사의 그린워싱 사례와 시사점

2021. 10. 12.

-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녹색(green)과 세탁(washing)의 합성어로, 실제로는 친환경 경영과 거리가 멀지만 비슷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 즉 '친환경 이미지로 세탁'하는 것을 의미
 - ESG가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어젠다로 부상하고, 막대한 자금이 ESG 금융 상품으로 유입되면서 그린워싱 논란도 동반 확대
- DWS(Deutsche Bank 계열 운용사)는 기준에 부적합한 펀드를 ESG 상품으로 분류하여 ESG 투자규모를 허위로 공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독일과 미국 금융당국이 지난 8월 조사에 착수
 - DWS의 그린워싱 여부는 아직 조사 중이나, 허위공시와 같은 높은 수준의 그린워싱이 금융회사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기업가치의 급락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
- Franklin Templeton, Vanguard 등은 ESG 펀드의 기초자산이 ESG와 무관한 기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린워싱 논란을 야기
- HSBC와 JPMorgan Chase는 ESG 경영을 선언했음에도 여전히 화석연료 기업의 주요 자금공급처 지위를 유지함에 따라 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임
- 그린워싱이 발생하는 이유는 ① 그린(ESG) 여부를 판단·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이나 규제 미비(외부적 요인)와 ② 금융회사의 단기 성과주의(내부적 요인) 등에 기인
- 그린워싱은 금융회사의 이미지 훼손에 따른 영업력 위축, 기업가치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격한 내부검증과 예방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우리금융은 ESG 후발주자라는 점에서 신속한 캐치업(catch-up)을 추구함과 동시에 진정한 '그린'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

작성자: ESG-기업금융연구실 이새롬 팀장 (02-2173-0567)

ESG-기업금융연구실 김강현 인턴 (02-2173-0531)

책임자: ESG-기업금융연구실 임재호 실장 (02-2173-0583)



목 차



I . 그린워싱(Greenwashing)의 개념	1
II . 글로벌 금융회사의 그린워싱 사례	1
III . 그린워싱 확산의 원인과 주요 쟁점	4
III . 대응방안과 시사점	5
[붙임1] 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의 주요 내용	6

I. 그린워싱(Greenwashing)의 개념

-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녹색(green)과 세탁(washing)의 합성어로, 실제로는 친환경 경영과 거리가 멀지만 비슷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 즉 ‘친환경 이미지로 세탁’하는 것을 의미
 - ESG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함에 있어 국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여 투자자와 고객을 오도하는 적극적인 행태부터,
 - 부적합한 금융상품(펀드, 대출 등)을 ESG로 분류하거나 이름만 바꿔 고객에게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없이 ESG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그린 워싱에 해당
- ESG가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어젠다로 부상하고, 막대한 자금이 ESG 금융 상품으로 유입되면서 그린워싱 논란도 동반 확대
 - 2025년 글로벌 ESG 금융상품 시장규모는 2016년(23조달러) 대비 2배가 넘는 53조달러로 추산되며, 전체 시장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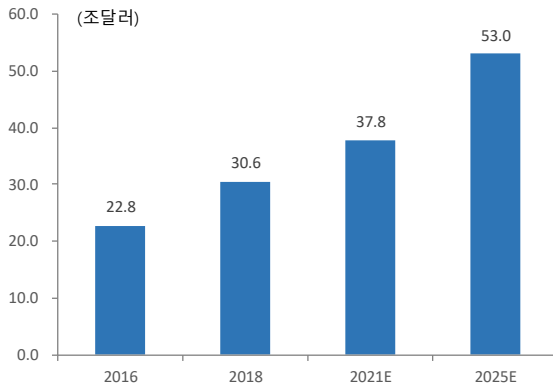
II. 글로벌 금융회사의 그린워싱 사례

1. 허위공시

- DWS(Deutsche Bank 계열 운용사)는 기준에 부적합한 펀드를 ESG 상품으로 분류하여 ESG 투자규모를 허위로 공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독일과 미국 금융당국이 지난 8월 조사에 착수
 - * DWS는 2020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전체 운용자산(9천억유로)의 약 50%(4,590억유로)가 ESG관련 자산이라고 발표
 - 前 지속가능성 책임자는 DWS가 적절한 ESG 평가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ESG 기준에 적합한 펀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ESG 자산 50%’는 허위 공시라고 고발
 - DWS는 그린워싱 의혹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SEC와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14% 가까이 폭락
 - * DWS 주가(유로): 8.25일 41.72 → 8.26일 36.02 → 9.1일 35.68 → 10.5일 3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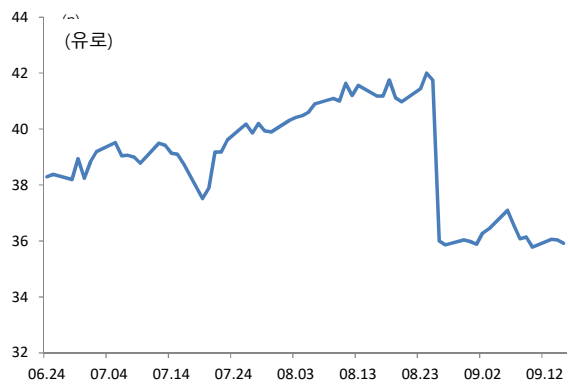
- DWS의 그린워싱 여부는 아직 조사 중이나, 허위공시와 같은 높은 수준의 그린워싱이 금융회사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기업가치의 급락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

글로벌 ESG 운용자산 추이



자료: Bloomberg

DWS 주가 추이



자료: S&P

2. 적극적인 ESG 실천 미흡

- Franklin Templeton, Vanguard 등은 ESG 펀드의 기초자산이 ESG와 무관한 기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린워싱 논란을 야기

- ESG 평가기관인 InfluenceMap는 BlackRock,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UBS 등 글로벌 주요 운용사의 130개 ESG펀드(운용자산 670억달러) 중 72%가 파리기후협정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
 - Franklin Templeton의 경우 ESG와 무관한 기업에 투자하거나 투자대상 기업의 적극적인 ESG 경영을 촉구하는 ‘투자자 행동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
 - * US Equity Sustainability Leaders Fund는 Microsoft, Apple, Costco, Home Depot 등 미국 대기업에 주로 투자하고 있고, 일부 ESG 펀드는 대표적 고탄소배출 업종인 석유기업(Woodside Petroleum)에 투자¹⁾
- Vanguard는 US ESG ETF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Google, Apple 등에 투자하면서 일반 테크핀 ETF를 명칭만 ESG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²⁾
 - * 2018년 이후 누적수익률은 28% 수준

1) FT, ‘Climate funds often fall short of Paris goals’ (2021.08.30.) 기사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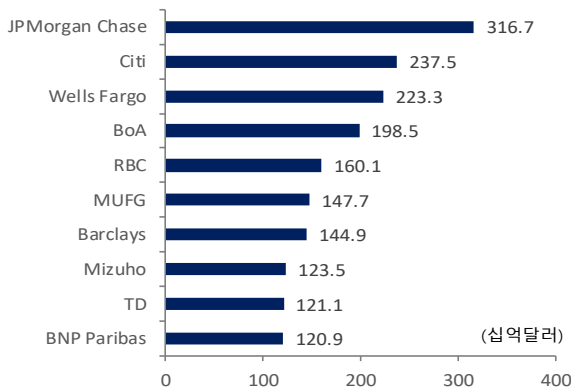
2) Financial Times, "The fallacy of ESG investing" (2020.10) 기사 재구성

- Google, Apple 등은 ESG 경영을 선언했지만, ESG 기업으로 분류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 HSBC와 JPMorgan Chase는 ESG 경영을 선언했음에도 여전히 화석연료 기업의 주요 자금공급처 지위를 유지함에 따라 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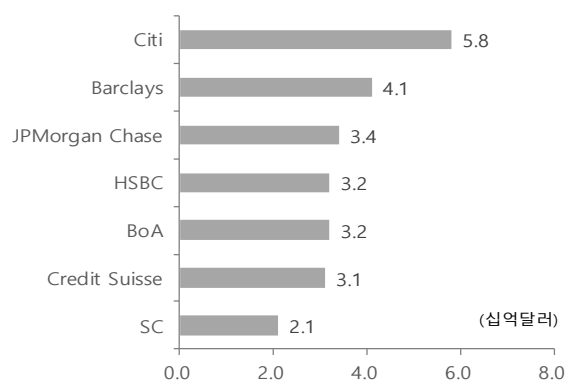
- HSBC는 2050년 Net-Zero 달성과 함께 2030년까지 약 1조달러의 기업 에너지 효율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나, 화석연료 파이낸싱 중단(phase-out) 계획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
 - * HSBC의 2016년(파리협정 체결) 이후 누적 파이낸싱 규모는 1,108억달러로 글로벌 13위
- Amundi, Man Group 등 15개 기관투자자들은 HSBC가 화석연료 중단 계획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주총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밝힘
- HSBC는 2030년까지 신흥국, 2040년 이전에 선진국에 대한 화석연료 투자 중단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을 수습

글로벌 화석연료 파이낸싱 은행 순위



자료: RAN

은행별 석탄발전소 파이낸싱 규모



자료: RAN

- 글로벌 최대 화석연료 파이낸싱 은행인 JPMorgan Chase에 대해서도 HSBC와 같은 그린워싱 이슈가 불거짐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2.5조달러를 투자하고 전체 펀드(운용사 기준)의 47%가 ESG 요소를 반영하고 있음을 발표한 바 있음
 - 2020년말 기준 전체 기업금융자산 중 약 20%가 고탄소배출 업종이 차지하고 있고, 2016년 이후 화석연료 파이낸싱 누적금액도 3,167억달러로 Citi(2위) 보다 33% 많은 수준
 - * 제기된 그린워싱 이슈에 대해서 별도의 대응은 취하지 않음

III. 그린워싱 확산의 원인과 주요 쟁점

■ 그린워싱이 발생하는 이유는 ① 그린(ESG) 여부를 판단·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이나 규제 미비(외부적 요인)와 ② 금융회사의 단기 성과주의(내부적 요인) 등에 기인

- (① 명확한 기준과 규제 미비) 글로벌 차원에서도 ‘진정한 ESG’를 엄격하게 가려 낼 수 있는 평가체계가 아직 구축 단계에 있는 등 명확하고 일관된 그린워싱 판단 기준이 부재
 - 유럽에서는 2020년 3월부터 그린워싱 검증을 위한 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추가 보완이 필요한 수준³⁾
 - * SFDR 시행 이후 다수의 펀드들이 ESG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어 2018년 14조달러에 달하던 유럽 내 ESG 투자규모가 2020년 12조달러까지 급감
 - SFDR의 규제 대상인 금융회사와 전문가들은 SFDR의 세부 기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실행방안도 구체적이지 않아 ESG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린워싱을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
- (② 금융회사의 단기 성과주의)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적절한 검증·평가 프로세스가 없음에도 당장의 가시적인 ESG 성과 창출을 위해 무리하게 ESG 활동을 부풀릴 유인이 상존
 - 기준과 규제 미비로 외부기관들이 금융회사의 내부 ESG 프로세스를 직접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음

■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일 경우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객관적인 입증에 한계가 있고,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평판훼손 등의 부작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 금융회사들도 ‘진정한 ESG 상품’ 개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규제환경이 정립되기까지는 그린워싱 논란에 취약할 수 밖에 없음
- Nordea Bank의 경우 내부적으로 정확한 정보공개 프로세스 구축, 전문 인력 확충, 장기 성과 지향적 경영전략 수립 등을 통해 그린워싱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 논란 제기 시 담당 임원이 직접 언론 등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그린워싱에 적극 대비

3) [붙임1] 참고

[Box] Nordea Bank의 그린워싱 예방과 대응사례

- Nordea Bank는 UNEP FI 등의 국제기관과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ESG 규정 제정에 참여하면서 금융회사의 입장을 개진
 - EU Taxonomy를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그룹 내 주요 사업부문에 적용
- ESG 상품판매 과열 현상을 차단하는 등 단기 성과주의 예방 노력을 확대
 - ESG 펀드로 자금 유입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ESG를 적절히 평가하고 운용할 자체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펀드 투자한도를 10억달러로 설정
- 금융보다는 환경분야 전문인력 확충 노력을 지속하면서 진정한 ESG 상품 개발을 모색
- 그린워싱 논란 제기 시 적극적인 대외 커뮤니케이션 등 신속하게 대응
 - 지속가능연계 채권이 ESG 가치에 부적합하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담당 임원이 직접 보고서, 인터뷰 등을 통해 신속하게 그린워싱이 아님을 적극 설명
 - * 2019년 세계 최초로 발매된 Enel(이탈리아 에너지기업)의 지속가능연계 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에 발행사로 참여

자료: 언론기사 재구성

IV. 대응방안과 시사점

- 그린워싱은 금융회사의 이미지 훼손에 따른 영업력 위축, 기업가치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격한 내부검증과 예방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
 - Nordea Bank 사례와 같이 그린워싱 논란 발생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외 커뮤니케이션 등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갖출 필요
- 특히 우리금융은 ESG 후발주자라는 점에서 신속한 캐치업(catch-up)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린 검증’에 소홀히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그린워싱 논란은 진위와 무관하게 그룹이 그동안 노력해온 ESG 경영 강화라는 성과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외부 평가체계가 완성되기 이전에라도 엄격한 내부 검증 시스템을 마련·적용할 필요

붙임1 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의 주요 내용

- EU는 금융회사의 투자와 금융상품 공시 시 ESG 관련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을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
 - 2018년 수립된 ‘EU Action Pla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ESG 활동의 투명성 제고와 그린워싱 예방이 목적
 - * 165개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기술표준(RTS: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을 포함하는 등 금융회사의 명확한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시

SFDR의 공시 내용

Entity-level disclosures		Product-level disclosures	
Publish information on the policies regarding the taking into account of sustainability risks in investment decisions/advice.	Sustainability risks	Description of the characteristics and objectives, and of the methodologies for the assessment, measurement and monitoring. Explain how sustainability risks are integrated in investment decisions/advice, and the impact of these risks on the returns of the products . If risks are not integrated, explain why.	Special disclosures For products promoting environmental or social characteristics or having sustainable investment as their objective, explain how, comparison with designated index... In pre-contractual disclosures, on the website, and in periodic reports
	Principal Adverse Impacts on Sustainability ("PAIS")	Explain whether, and if so how, a product considers PAIS . If PAIS are not considered, explain why.	
	Explain the due diligence policies regarding the PAIS of investment decisions/advice . Where the PAIS are not considered, explain why. Explain how the remuneration policy is consistent with the integration of sustainability risks .	Remuneration	Taxonomy disclosures Explain which environmental characteristic the product promotes or which environmental objective it has. Also explain to what extent the investments underlying the product are in activities that qualify a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under the Taxonomy Regulation.
On the website		On the website & in pre-contractual disclosures	In pre-contractual disclosures

- 금융회사에게 ① 기업단위의 지속가능성 뿐 아니라 ② 상품별 정보 공시 의무가 부여4)
 - [① 기업의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PASI: Principal Adverse Sustainability Impacts)들을 18개로 분류하고 기준에 따라 공시
 - PASI 식별, 우선순위 배정 정책, 국제표준 준수 방안, 개선계획 등의 내용이 공시 범위에 포함

4) 국제금융센터, “EU, 금융권 ESG 제도화의 본격 시행” (2021.03.10.) 인용

PASI의 분류체계와 공시의무 내용

항목	구분	내용	
기후 환경	온실 가스	(1) 온실가스	•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3) •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2) 탄소발자국	• 탄소발자국
		(3) 투자대상의 온실가스 강도	• 피투자기업의 온실가스 강도
		(4) 화석연료 분야 기업의 연관성	• 화석연료 분야에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
		(5) 비재생 에너지 소비 및 소비 강도	• 피투자기업의 재생 불가 에너지 생산 점유
		(6) 기후 분야 에너지 소비 강도	• 피투자기업의 수익 대비 에너지 소비량
	생물 다양성	(7) 생물다양성 민감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	• 생물다양성에 민감한 지역에 있거나 그 근방에서 피투자회사의 활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비중
	물	(8) 폐수 방류	• 피투자기업의 오염수 배출량(투자액 백만유로당 배출량(톤), 가중평균으로 계산)
	폐기물	(9) 유해 폐기물 비율	• 투자액 백만유로당 피투자회사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폐기물(톤)
사회 인권	사회· 노동자	(10) 유엔글로벌팩트 원칙 및 다국적기업을 위한 OECD 지침 위반	• UNGC 원칙,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지침 위반 기업 투자 비중
		(11) 유엔글로벌팩트 원칙 및 OECD 지침 준수 모니터링	• UNGC 원칙,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지침 준수 여부, 관련 고충 및 불만 처리 구조 모니터링 정책이 없는 피투자 기업 투자 비중
		(12) 조정되지 않은 성별 임금 격차	• 피투자기업의 조정되지 않은 성별 임금 격차
		(13) 이사회 내 성별 구성	• 피투자기업 이사회의 남·녀 비율
		(14) 논란성 무기에 대한 노출 정도(대인지뢰, 화학무기 등)	•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련된 피투자기업의 투자 비중
국가	환경	(15) 온실가스 집약도	• 피투자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
	사회	(16) 국제협약 및 국제법 위반 투자대상국 비중	• 국제조약 및 협약, UN 원칙, 국가 법률에서 언급되는 사회적 위반에 해당하는 피투자국가 수
부동산	화석 연료	(17) 화석연료와 부동산자산의 연관성	• 화석연료 추출, 저장, 운송, 제조에 관련된 부동산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에너지 효율	(18) 비효율 에너지 부동산(자산)과의 연관성	• 에너지효율이 낮은 부동산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EBA, EIOPA, ESMA 등

- [② 상품공시] EU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 중 환경적·사회적 특성을 홍보하거나, 지속가능한 투자로 분류된 상품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여
 -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자·상품 설명서, 정기 운용보고서 등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자료에 ESG 관련 정보를 수록
 - 공시 내용은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 산정과 적용방법 등을 비롯하여, EU Taxonomy에서 요구하는 공시 사항, SFDR 세부 규정에 포함된 특별 공시 내용 등으로 구성